

Dyke



대동인은 대학 동성애자 인권연합을 말하며
바탕의 심볼마크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뛰어
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DYKE는 공격적인 여성(레즈비언)을 말하며,
여성성을 존중하는 대동인의 취지를 의미합니다.

발행일: 1998년 5월 15 | Tel: 923-0609 | Fax: 923-217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97호 110-600
발행인: 양지용 | 편집장: 김호세 | 제작자: 청운 | 가격/1000원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 열어...

(대동인 5월 8일 한양대서 진보세력과의 연대토론회 개최)



지난 1월 31일 비대위 결의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중요공원)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하 대동인)은 오는 5월 8일 한양대학교 콘서트홀(학생회관 4층: 오후 5시-10시)에서 타동성애자단체, 노동자단체들과 함께 연대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7년 1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 안기부법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시킨 사건에 분개한 노동대중들의 총파업때부터 함께 연대해 온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각 부문운동단체들과 보다 진보적인 상호연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동인이 주관하고, 인권운동 사랑방, 시립대학교 언론협의회, 국민대학교 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양대학교 여성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인하대학교 공대학생회, 하이텔 통신모임 '또하나의 사랑동호회(또사동)', 동성애잡지 버디(BUDDY), 남성동성애자 모임인 '친구사이'가 협찬단체로 참여하게 된다. 사실 지난 95년 이후 동성애자 모임들이 양적으로 팽창해 오면서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을 돕고 커뮤니티의 질적 발달의 기초를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성애자 커뮤니티내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을 집약되고 결집된 목소리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기초로 하여, 대동인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내세워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최근의 활동으로는 올 1-2월에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반대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의 모임은 에이즈를 빌미로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탄압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모임이나 인권단체들이 여전히 총체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남성동성애자들은 여전히 편견과 억압의 희생양으로 낙인받고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직장, 커밍아웃, 가족 등의 억압수단을 통해 우리는 그 심각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제한된 삶을 "즐긴다"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에이즈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리주의적인 발상보다는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라는 사회적 억압에 대해 동등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동지적 입장을 통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라 함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탄압받는 모든 세력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만이 그 운동의 생명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9일 발족한 대동인은 동성애자인권운동과 노동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이 이러한 탄압적 기제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노동연대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와 노동자세력, 그리고 넓게는 이 사회의 빛이 될 모든 진보세력들과 어떤 주제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이다. 유래가 없는 일이고, 아직은 동성애자체에 대한 타부문운동 세력들의 인식이 낮은 이유로 인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왜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는지, 동성애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체성의 하나임을 인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동인은 가능한 많은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자리는 바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밝히고, 그 미래를 타진하며, 동성애자들의 이익을 가장 큰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관련기사 4.5.6.7면 기획기사)

이 달의 기획기사 4.5.6.7면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전망모색을 위한 지상논의

사설

진술거부권(묵비권)이란 무엇인가!

-경찰검문시 대처요령

4월 29일 새벽 1시 10분경 모 게이바에 사복경찰이 미성년자 단속을 위하여 검문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손님에게 신분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어갔고, 다음으로 사복경찰관은 진술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의협력국장은 경찰에게 진술서를 왜 쓰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경찰관의 답은 당신은 누군데 참견하느냐라고 물어왔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니 진술서를 쓰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얘기 했다.



진술거부권의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89조의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경찰은 이러한 법적 조항을 손님에게 말해주지 않고도 강압적인 자세로 진술서에 진술내용과 지장을 찍기를 강요하였고, 진술거부권 의사를 계속 밝히자, 경찰은 당신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끼어드는나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옆에 있던 여러사람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하라는 식으로 나가버렸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조사하기 전에 통상 "당신은 진술거부권이 있다."라고 미리 말해주지 않는데 이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은 조서나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92년에 이를 분명히하였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 도682 판결)라고 판결하였다.

위의 사실을 보아도 진술거부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사복경찰관들은 피의자가 아닌 술집의 손님에게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만약 자기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으며, 특히 수색영장 없이 자신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던가 체포영장 없이 파출소나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요구하는 것은 위법적이고 불법이다.연행에는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이 있다. 임의동행이란 본인의 동의하에 동행하는 것이고,(따라서 법상으로는 거절할 수 있다) 강제연행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연행해 가는 것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동행요구가 있으면 그것이 구속영장의 집행인지 임의동행의 요구인지를 명백히 따져 물어야 한다. 영장 제시 없는 강제연행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거부해야 한다. 불심검문에 의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경우,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어넣겠다고 해도 그건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성명, 직위, 소속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일반적이고도 전면적인 불심검문이다. 불심검문은 기본적으로 보안경찰을 위한 것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1, 2, 4항)와 주민등록법 제17조 10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경찰관은 길 가는 행인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며, 시복 경찰인 경우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힌 후에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소지품의 조사는 할수 없게 되어있다. 소지품 검사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경찰관서로의 동행을 강요한다든지, 가방 등을 강제로 열어 본다든지, 경찰관의 질문이나 소지품 검사, 동행요구 등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은 불심검문 대상을 매우 광범하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불심검문은 거의 다 직권남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요구할 때에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엄중 항의하면서 주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성명,소속,직위 등을 공격적으로 반문하고 직권남용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대동인 대의협력국

관련기사

지난 4월 18일 새벽 01:05경, 경찰은 이태원 소재의 모 게이바를 급습하였다. 습격의 이유는 미성년자 불법 영업. 현재 이태원의 대부분의 야간 영업소들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날 바내부에서 한 경찰이 두 명의 게이를 잡자, 도주하던 중 그 중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 오른쪽 다리에 금이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미성년자 불법영업을 빌미로 했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정상허가영업시간이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영업을 방해하게 되었다. 이는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던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전에 네 차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이는 업주간의 불화가 서로 신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세간의 속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날 부상을 당한 게이들은 군인신분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게다가 경찰의 급습으로 커밍아웃의 위험을 느낀 그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때문에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NDEX

- 머릿기사 1
- 사설 2
- 각종기사 3
- 기획기사1 4-7
- 기획기사2 8-9
- 문화/해의소식 12-13
- 성명서 /광고 16

대동인 연혁

- 1997년 9월 9일
가칭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건설준비위원회 발족
- 1997년 11월 2일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대동인) 정식 출범
- 1997년 12월 21일
대동인 홍보와 기금마련을 위한 이벤트<맛있는 불량식품> 신촌 레즈비언 바 라브리스에서
- 1997년 12월 31일
대동인 송년회 대동인과 함께 하는 망년회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 1998년 1월 5일
시무식
- 1998년 1월 16일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동인협에 제안 및 결성
- 1998년 1월 22일
대동인, 동인협 공동 성명서 발표
- 1998년 1월 26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차 항의방문
- 19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 임시총회<노사정 합의안 부결을 위한> "노동자와 동성애자의 총연대를 위하여" 전단 배포
- 1998년 2월 14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차 항의방문전국연합 집회 연대투쟁 <양심수 석방과 정리해고 반대, 탑골공원>
- 1998년 2월 22일
동성애자 인권지지와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이태원 게이바 지퍼>
- 1998년 3월 14일
연대 토론회 참가 (장소/고려대)
- 1998년 3월 15일
dyke 창간
- 1998년 3월 21-22일
신인회원 환영 M.T.
- 1998년 4월 11일
연대 토론회 참가 (장소/서울대)
- 1998년 4월 13-24일
각 대학 홍보
- 1998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참가

대동인 활동보고

세계 여성의 날 90주년 기념행사 참가

3월 8일 여의도 주택은행 강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협회 의회 주최로 3.8 세계 여성의 날 9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국제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시에서 1만 5천 피복 노동자들의 가두 시위에서 비롯해, 1910년부터 경축되기 시작했다. 뉴욕 시의 피복 노동자들은 여성들로서, 열악한 작업조건 개선, 아동노동 폐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권등을 요구했다. 2년 뒤인 1910년, 독일 사민당(SPD)의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에 뉴욕시 피복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해 3월 8일을 공휴일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부당한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경제위기의 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여성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진정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단병외위원장(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위원장)과 박인상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하여 연대와 축하 메시지, 슬라이드 상영 등을 하였고, 98 여성노동자 선언문을 결의하였다.

연세대에서 여연이 이희호씨와 행사를 했던 것에 비하여 정리해고 반대해서 싸우자는 요구를 가지고 여성노동자들이 모인 것이 좋았다. 대동인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1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였다. 24부의 신문을 팔았고,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었다. 조금 늦게 감으로써 행사가 끝난 후에 신문을 좀 팔수 있었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신문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나선우

민주노총 의장후보 초청토론회 참가

3월 21일 토요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1번 후보는 다시 현장에서 투쟁으로 거듭나는 민주노총'을 말하는 정갑득 후보이고 2번 후보는 강력한 민주노총 건설-현장의 힘! 노동자의 미래!'를 말하는 이갑용 후보이다. 사회는 이광호씨가 보였고, 민주노총이나, 노사정위원회, 고용안정,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각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동인에서도 몇 명이 참여하여,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여 싸워온 동성애자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양 후보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먼저, 장 운 사무총장 후보는 "고민하는 문제에 동성애자 문제가 중심으로 와 단지 않는다. 성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 개인에게 부득이하고 어D수 없는 부분 아닌가. [섹스북]에서 반이상 동성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받아들이는 시각으로는 정당할수 있지만,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문제는 어렵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정갑득 후보는 "자신의 생각은 틀리다. 성이라는 문제는 도덕적으로 은밀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관계이다. 우리의 역사를 깨는 부분은 올바르게 없다. 도덕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동성애 부분은 우리 전통적인 가족상을 깨뜨리기에 도덕적이지 않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갑용 후보는 "민주노총과의 연대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대동인은 민주노총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5부의 신문을 팔았고, 전단도 나누어 주었다. 어느 노동자는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서 속상하겠다고 우리를 위로했고, 또사모에 대하여 아는 노동자가 신문을 사면서 말을 걸기도 했다. 신문이나 전단지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많았다.

후기-3월 31일 민주노총 선거가 있었고, 더 싸우자는 이갑용 후보가 당선되었다.

- 나선우

노동정치 토론회 -노동자와 동성애자의 연대를 위해서

지난 3월 7일 고려대 강당에서 첫 번째 노동정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노동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며, 노동자정치를 위한 토론의 활성화였는데, 첫 번째 주제로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전망과 비판이었다. 소위 문민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노동자 탄압의 정책이 김대중 신정부에서는 완화 내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 대중 및 노동자들의 기대 및 환상을 깨치고,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일방적 피해자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신정부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응자세 확립을 위한 행사였다. 각 대학의 참가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약 500명 이상 참가하여, 주최측의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행사에 대동인도 참가하여, 노동자와 동성애자 진영의 연대와 노동자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였다. 대동인은 대표 이하 약 20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우선 노동자와 동성애자가 둘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탄압받는 계층임을 알리고, 두 진영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인물을 구내에서 배포하였다. 또 가판에서 대동인 기관지 다이크로를 판매하여 대동인 및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현황을 보고하고 선전하였다. 토론회에서 대동인 대표 양지용씨가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 참석자 전원이 큰 박수로 환영과 지지, 연대를 표시했다. 특히 행사 뒤풀이에서는 대동인 회원들과 행사 참가자들 사이에 동성애자 억압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대화가 이어졌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였다고했다. 앞으로 대동인은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 참석은 그 출발점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몇몇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장속에서 일반 대중속으로 침투할 때 그 결실이 맺어짐을 대동인 회원들 스스로도 깨닫는 기회였다.

- 진달래

노동정치 토론회(IMF-원인과 대안) 참가

4월 11일 토요일 4시에 서울대 인문관에서 노동정치 토론회가 <IMF시대-원인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내용은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좌파의 잘못된 입장들, 신자유주의, 진정한 원인과 대안 등이었다. 동양엘리베이터에서 파업금지모금을 하였고, 인천 랜드로바 사업장 투쟁내용도 발표되었다. 현장노동자들과 운동가들이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대동인에서는 10명이 참가하여 29부의 <다이크>지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위한 지지모금을 통해 51,330원을 모금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뒷풀이 장소에서 조금 늦게까지 신문과 모금활동

을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모금한 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4월 16일 대동인 3번에서는 중앙대학교에서 홍보전을 펼쳤다. 이날 홍보에는 나선우, 신길용, 정병선, 박수광, 발군 등 다섯 분이 참여했으며,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중대 신문사, 교지편집실, 영자신문사, 법과대, 인문대, 공과대와 여러 동아리방 등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홍보내용은 5월 8일 연대토론회와 대동인에 관한 소개였으며, 대동인 신문 14부를 판매했고, 연대토론회에 대한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학내에는 대자보와 대동인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날 홍보전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중앙대 신문사에서는 연대토론회에 대한 기사를 신기로 약정했다. 예전에 다이크지를 접한 중대학생은 자신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동성애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이크지를 보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을 홍보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인하대학 홍보

4월 13일(월) 대동인은 인하대학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 날 대동인은 인하대학교의 신문사, 영자신문사, 법정대학, 상경대학, 의과대학, 가정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이과대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총학생회, 신문사를 방문하여, 책임자나지는 관련자들에게 대동인에 대한 개괄적인 홍보와, 5월 8일 있을 노동연대 토론회에 대한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대동인 신문 7부 판매-각 학생회 집행부, 신문사, 교편)인하대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초기단계이지만, 이미 산발적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신문사와 교지편집회에서는 동성애, 또는 성일반에 대한 기사를 다루어 보았거나 앞으로 다룰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인하대학의 운영자측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상담소에 동성애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한다.(영자신문사 기자의 말) 실제로 인하공전 교지위원회가 동성애를 다룬 시각은 상당히 대동인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각 동성애자 단체들의 활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실어 놓았으며, 앞으로 대동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 인하대와 인하공전의 각 신문사와 교지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차 홍보에서 보다 많은 인력과 자료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 이준희, 정병선, 김호세)

중앙대 홍보

지난 4월 16일 대동인 3번에서는 중앙대학교에서 홍보전을 펼쳤다. 이날 홍보에는 나선우, 신길용, 정병선, 박수광, 발군 등 다섯 분이 참여했으며,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중대 신문사, 교지편집실, 영자신문사, 법과대, 인문대, 공과대와 여러 동아리방 등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홍보내용은 5월 8일 연대토론회와 대동인에 관한 소개였으며, 대동인 신문 14부를 판매했고, 연대토론회에 대한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학내에는 대자보와 대동인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날 홍보전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중앙대 신문사에서는 연대토론회에 대한 기사를 신기로 약정했다. 예전에 다이크지를 접한 중대학생은 자신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동성애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이크지를 보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을 홍보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참여자: 나선우, 신길용, 이정일 등)

대동인-인하대 공대 연대토론회 개최 예정

인하대 공대학생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주최하는 학내 대동제에 대동인이 결합하여 주도적인 행사행동을 맡아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기간중 행사 내용은 토론회, 영화제, 일일주점이며, 대동인에서는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진행, 영화제에 필요한 영화선정과 영화평, 일일주점에서의 홍보를 중심으로 담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한 수익금 전체는 대동인의 활동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를 위하여 대동인은 신문판매와 각종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고민할 것이며, 인하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에는 아직 집단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일시: 5월 12일 또는 13일

주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가!

발제: ① 동성애자인권상황, 인권운동

②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것이 이롭지 않은 이유

③ 동성애자 인권운동 지지

형식: 발제를 포함한 자유토론회

사회: 인하대 공대학생회

2. 영화제: 동성애자인권운동관련 다큐멘터리 / 그외 다수의 동성애관련 영화

3. 주점: 나흘간 인하대 내에서 동성애자인권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

메이데이 집회참여

대동인 회원들은 지난 5월 1일 종묘에서 있었던 노동절집회에 무지개 깃발과 대동인 깃발을 들고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동인의 메이데이 성명서를 배포하며 동성애자들이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세력임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탄압받는 모든 세력의 운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달의 기획기사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전망모색을 위한 지상논의

다음 글은 5월 8일 한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연대토론회의 발제 내용이다. 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시립대학교 언론협의회, 노동정치토론회 등 네 단체가 발제를 맡았으며, 각 내용들은 한국의 현실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사회의 각 부문운동들이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연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토론했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보다 당당한 사회적 커뮤아웃의 기회가 되고,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중대한 원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대동인의 바람이다.

동성애자들은 왜 억압받을까?

서울시립대학교 언론협의회 의장 이정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될 때마다 흔히 동성애자들이 '별종', '성도착자', '변태성욕자' 라는 소위 '비정상'이라는 관념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며, 그 정의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 크게 변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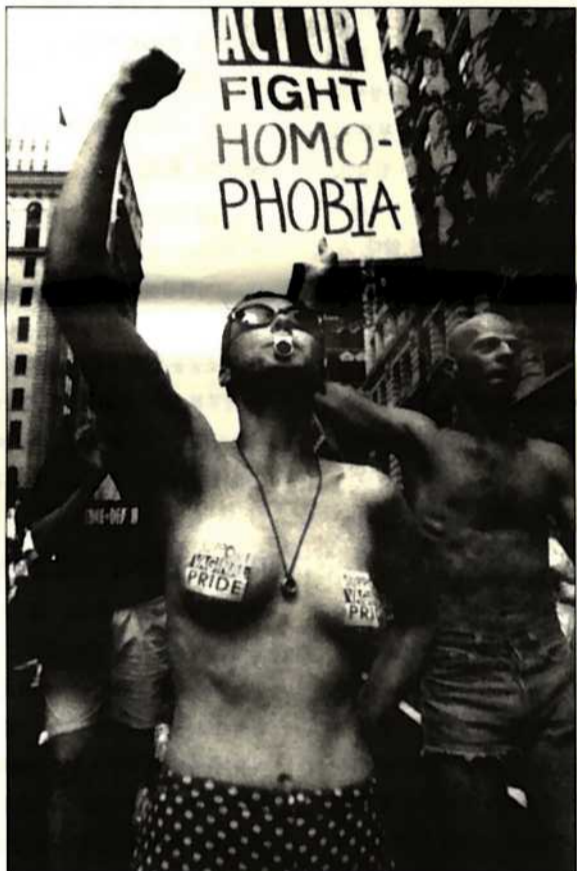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대략 B.C 500-300)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소년들에게 품는 성적 욕망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결혼이나 자녀 양육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사회가 억압이 없는 실낙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노예제에 바탕으로 한 사회였고,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낮아 여성과 평등한 성관계를 갖기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을 정도로 억압적인 사회였다.) 봉건시대 일본의 특권 무사계급이었던 사무라이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청년들과 남성들의 사랑을 발판 삼아 군대를 육성했다.

하나의 사상체계인 동시에 일련의 제도로서 기독교는 고대 이후 성억압에 아주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동성애 혐오증과는 다른 것이었다. 죄악시되던 방탕한 특정 행위가 비난받은 것이지 특수한 인간유형이 비난받았던 게 아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비난했던 대상은 훨씬 광범위해서 동성관계만이 아니라 생식과 관계없는 모든 섹스를 포함했다. 서유럽 역사에서 '암흑시대'로 알려져 있는 A.D500-800년 사이는 폭력과 잔인한 만행이 난무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동성관계에 대한 박해는 없었으며 이런 느슨한 완화가 몇 세기 더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사회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엄격히 금지되기도 하였다. 동성간의 사랑은 인간 성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곤 했다. 오히려 해명해야 할 문제는 왜 일부 사회에서 동성애를 특정한 성향으로 규정짓고 법적, 제도적으로 억압하는가 하는 것이다.

19세기말 이전까지는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869년 헝가리인 의사 벤케르

트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뒤로 쓰임이 확대되어 마침내 1860년대말부터는 '거꾸로 된 성적 감정'이나 '성도착', '천상의 사랑'이 뜻하는 개념까지도 포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것이다. 이런 새로운 단어가 이 시기에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제 특정한 인간 유형이나 조건을 지녔다고 간주되는 남성 및 여성에 대하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생겨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특히 산업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인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세기는 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 특히 성적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이 연구들의 목적은 그러한 성향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그것



의 치료였다. 또 동성애는 이 시기에 법률적으로 금지되고 처벌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프리시아가 주도한 통일과정에서 남색을 범죄화하지 않았던 몇몇 나라들에게 프리시아 법전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파시스트 정권은 동성애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착수하였다. 1934년 나찌 법무부에서 발표한 법률지침을 보면,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년에 1만 건의 유죄판결이 나왔고, 모두 합쳐 최소 1만명과 그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고 목숨을 잃었다) 영국의 1885년 개정형법 수정조항, 미국의 버팔로 지역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범하려고 어슬렁거리는 것'에 대한 조항이나 뉴욕시의 I와 D(빈둥거리고 방탕한 사람) 조항, 성적 정신질환자법 등도 모두 동성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억압을 정당화한 조항들이다.

초기 산업화 과정은 생산의 단위인 가족의 기초를 허물어 버림

으로써 노동계급 가족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은 계속 존재했을 뿐 아니라 번성했다. 하지만 매우 다른 형태를 띠었다.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노동력 공급에 의존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굳혀 갔다. 19세기 중반 이후로 노동계급 사이에서 안정된 가족생활을 다시 일궈 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많은 자본가들이 '가족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나 전임제로 일을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가족을 강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부과되었다. 모든 가족 성원은 가족이 자기 삶의 일부나마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정한 세계 속의 안식처라는 환상을 가졌다. 그리하여 가족은 공적인 생산영역과 분리된 '사적' 생활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자본주의의 생산요구에 의해 구성되고 통제되는 영역이었다. 가족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물론 이데올로기적 통제까지 가하는 수단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엄격한 통제 때문에 남녀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동성애는 일부일처제 가족이 유일한 생활방식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또한 성관계가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도 도전한다. 성애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사회의 전통과 편견에 따라 규정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 즉,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핵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책으로서 동성애자 억압이 체계화되었다. 이처럼 성억압에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질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동성애 억압을 포함한 성억압은 사회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므로써만 성억압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동성애자 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김정현(자유기고가)

엔겔스는 1884년에 쓴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억압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혀냈다. 그는 가족제도야말로 여성 억압과 온갖 성억압의 토대임을 밝혀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제도는 사장들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공급받고 다음 세대 노동자 계급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기도 하다. 이 점 때문에 동성애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동성애는 일부일처제 가족이 유일한 정상적인 관계인 사회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의 관계는 더 이상 전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사회의 전통과 편견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개인적 문제가 아

나라 국가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공적인 문제가 됐다. 국가는 억압적인 법률들을 만들고 본보기가 될만한 법정 사건들을 동원해 모든 '비정상적' 성관계를 억압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골방에 가두려고 한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남성간의 동성애가 더 우월한 형태로 떠받들어 지기도 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은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마르크스주의 운동과 동성애자 해방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초창기부터 성억압에 맞선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1860년대 프러시아에서는 남성들의 동성애가 금지됐으며, 1871년에는 독일 형법에 동성애 금지조항(175조)이 추가됐다. 그래서 일찍이 1860년대에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성애 억압에 맞서 싸웠다. 독일사민당은 175조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 앞장섰다. 1895년 오스카 와일드 재판에서도 독일사민당은 오스카 와일드를 방어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에는 이론적 혼란이 함께 존재했다. 189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약한 마그누스 히르쉬펠트는 동성애자가 '제3의 성'이라고 바라봤다. 훗날 나찌는 히르쉬펠트의 사상을 악용해 동성애자들을 '유전적 별종'이라며 학살을 정당화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성억압이 사라지는가를 보여주었다. 1917년 12월에 볼셰비키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모든 법을 폐지했다. 낙태의 권리와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고 혼인에 대한 국가 승인 규정이 폐지되었다. 또 여성들을 가사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여성 억압의 물질적 토대를 없애려 노력했다. 전쟁으로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식당, 세탁장, 보육원이 세워졌다. 볼셰비키는 사회를 변화시켜 동성애를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동성애라는 말이 무의미해지게 만들려 했다. 러시아혁명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축제'였다.

1969년 스톤월 봉기로 다시 동성애자 해방 운동은 세상밖엔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 투쟁은 정치적 격동을 배경으로 태어났다.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운동, 프랑스의 68년 투쟁,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등 거대한 투쟁 물결이 세계 곳곳을 휩쓸었다.

스톤월 봉기 당시 미국에서는 수백만이 참여하는 반전운동이 일어났다. 흑인들도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억압에 저항하고, 여성운동도 꽃피었다. 전반적인 운동의 상승 속에서 자신감을 얻은 동성애자들이 경찰의 억압에 맞서 3일간 폭동을 일으켰고 8월에 게이해방전선(GLF)이 결성됐다. GLF라는 이름-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서 따왔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혁명적 투쟁과 동일시했다. GLF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들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즉 자본주의를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애자 운동은 노동자 투쟁의 상승과 맞물리지 못함으로써 노동자 운동과 접촉은 거의 없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험에 고무 받아 영국에서 1970년에 생긴 GLF는 노동자 투쟁의 상승과 맞물릴 수 있었다. 그들은 착취와 억압 모두에 맞서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인 노동자들과 쉽게 연대할 수 있었다. GLF는 탄광 노동자들과 항만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보수당 정부의 노동조합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연대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은 없었다. 성억압에 대해 반동적인 정치에 기반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여전히 좌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게 주된 이유였다. 투쟁이 차츰 퇴조하면서 동성애자들은 노동당 같은 개량주의 정치에 의탁하거나 개인적인 '생활양식 정치'로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LF는 동성애자 해방 운동에 대한 잃어버린 소중한 전통을 되살리는 소중한 기여를 했다.

노동자 계급과 동성애자 운동

투쟁이 퇴조하면서 온건한 성향의 운동-기성 체제 안에서 허용되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핑크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동성애자 운동에서 주된 흐름이 됐다. 이렇게 된 데는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급진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남녀 동성애자들이 억압받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사이에도 계급적 차이가 존재한다. 유명한 영화배우 록 허드슨이나 미국 연방수사국장이었던 후버 같은 사람들과 동성애자 노동자들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노동계급의 일원이다. 이들은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커밍아웃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러나 이들을 행동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주로 전문직을 가진 중간계급이 주도하는 온건한 운동에 머물기 쉽다. 또 동성애자들 사이에는 분리주의 경향

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GLF 초기단계에서부터 여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동성애자들과 사이가 틀어졌다. 남성 동성애자들 역시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여성운동과 분리주의 경향으로 기울었다. 이 모든 분리를 뛰어넘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해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성애자들은 노동자 운동에 함께 하고 노동자 운동은 동성애자들의 해방을 지지하는 것이다. 물론 남녀 동성애자들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자신들의 해방을 위한 대안으로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가장 동성애를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기에는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경험은 그런 분열을 부숴버린다. 계급투쟁이 급격히 상승해 일반화될 때는 수세기 동안 쌓여온 편견도 부술 수 있다. 투쟁이 사회가 강요하는 온갖 분열들을 극복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은 수세기 동안 뿌리깊게 존재했던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억압을 한 순간에 날려 버렸다. 1905년과 1917년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유대인인 트로츠키를 노동자 평의회의 지도자로 선출했다. 1984~1985년에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투쟁에 연대해 지지를 보냈고, 탄광 노동자들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했다. 탄광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었다. 이 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1월파업 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함으로써 노동조합에서 동성애자들의 억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투쟁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자들에게는 동성애자 해방을 지지하는 게 왜 그들의 해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와 거기에 바탕한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인권의 시각에서 본 동성애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총무)

1. 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대사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국제인권조약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각국의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권개념의 세 가지 단계는 순차적으로 나타나 앞의 단계가 소멸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면서 보완되어 간다.

근대시민혁명과 제1세대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 정치적 권리

'자유'의 의미로서 정치, 국가권력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는 방패막

-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자유권 조항-

인종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권리(3조)

노예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고문 기타 비인간적인 처우,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임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 자유(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12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
- 의사표현의 자유(19조)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 재산을 소유하고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 자본주의의 모순과 제2세대 인권- 사회권 혹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 사회권의 주체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구
-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사회권 조항
-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22조)
-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3조)
- 일정기간의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24조)
-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25조)
-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27조) 등

- 제국주의 수탈과 3세대 인권 - 집단권 혹은 연대권
- 2차세계대전 이후의 반제국주의운동을 반영하는 권리
- 앞의 1,2단계의 권리가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이 3단계 권리는 집단의 권리, 3세대 인권개념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음
-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자결에 관한 권리
-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권리
-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 평화에 대한 권리
- 다를 수 있는 권리
- 깨끗하고 균형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
- 인도주의적인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만들어온 여러 결실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것일 수 있으나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9세기까지 동성애는 악이나 죄로 취급당하거나 범죄 혹은 질병으로 간주 당해 온갖 차별과 탄압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1861년까지 영국에서 동성애자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는 범죄자였으며 독일에서는 형법 제175조에 의해 남성간의 동성애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치료자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경향성을 바꾸고자 약물치료, 혐오요법, 전기충격, 거세 및 자궁절제 같은 방법도 시도하기도 했다. 20세기에 이르러 스톤웰항쟁 같은 사건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혁명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된 DSM-I(정신질환의진단통계편람 제1판)에는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편차의 일종으로 "사회(병리적) 성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turbances)"에 분류시켰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로비와 정치, 사회적 투쟁으로 1974년 수정 발표한 DSM-II에는 동성애에 정신병리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즉 1974년에 이르러서야 동성애를 정신병리적인 성격장애나 성적인 적응장애(sexual orientation disturbance)가 아니라 -질병의 한 형태가 아니라 - 성적 지향의 한 형태(sexual orientation)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중반인 48년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에 관련된 중요문서에는 "성적 지향의 한 형태로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조항을 둔 것이 없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을 상기한다면, 인권은 시대 역사적인 배경 속에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21세기 인권개념의 하나인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s to different)"에 주목하기 바란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의 또다른 표현이다.

2.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는 무척 짧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동성애자 운동은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인권운동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색하려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갖는 의미는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의 인권운동이 양심수, 정치범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온 한계를 벗어나 "성적 소수자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새로운 인권개념의 지평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인권운동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인권'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를 이루게 하는 '최소공약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 노동, 인권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온갖 시민, 사회, 경제, 문화적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권리옹호운동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인 인간해방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 ① 소수자에게 붙여지는 사회적 낙인(stigma) -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다른 소수자보다 열악한 지위를 가지며 사회적 낙인도 심하다.
 - ② 소수자에 이기에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 - 동성애자 조직이 약한 것에서 오는 한계 (예를 들어, 퀴어영화제 탄압에 대한 대응의 미미함등), 사회운동세력 안에서조차 소수자라는 점(운동권속의 운동권, 소수자중에서도 소수자, 사회연대의 어려움)
 - ③ 굳건한 가족중심주의 가치관과 장자중심주의 가부장적 질서 - 가장 중요한 사회단위는 가족이라는 인식, 따라서 가족을 깨는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식,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태도
- 앞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메모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성에 대한 얘기 공론화

-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대
- 교육, 고용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 조항 신설
- 정규교육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교육 실시
- 이성애 중심주의 성담론을 다양하게 제기
- 언론모니터
- 여러 사회운동과 연대의 끈 형성
-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과의 연대 긴밀히 모색
-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전개

3. 국제인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 아래 글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기구에서 동성애가 인권의 가치로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은 인류가 "인권"의 이름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인간권리이다. 그 동안 많은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동성애는 아직 국제인권기구에서는 '권리' 혹은 '인권개념'으로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인권'이 만들어져가는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박차를 가해야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992년 8월 유엔인권포럼에서 동성애자는 "amongst some open hostility to his remark"에 대해 공개적인 첫 발언을 했다. 발언자는 레즈비언과 게이인 유엔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고 레즈비언 게이조직은 협의자격조차 없음을 지적했다. 레즈비언 게이조직은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고 세조직이 참여했다.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을 획득한 첫 번째 레즈비언 게이조직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ILGA)로 투표에 의해 1993년 결정되었다. 전통적으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던 결정을 경제사회이사회는 포기했다. 그러나 1993년 9월 유엔은 ILGA 협의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1994년 6월 그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부각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유엔의 발의권은 다시 제기되었다.) ILGA의 협의자격은 보류되었고 현재 계류상태다. 지금까지도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차별에 관한 발의권은 유엔차원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ILGA의 협의자격 보류는 유엔 인권활동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레즈비언과 게이 문제를 국제인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지속되는 스티그마를 들 수 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레즈비언과 게이에게 소수자로서 낙인을 찍고 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형법이 아직까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 인종, 여성차별문제와 비교했을 때 레즈비언과 게이에 가해지는 차별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열악한 조직을 들 수 있다.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레즈비언과 게이조직력은 약하다. 개인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중에서도 레즈비언과 게이 조직은 가장 적은 것이다. 셋째, 많은 국가들이 유엔에서 발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종교적 바탕을 둔 국가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레즈비언 게이 운동을 반대하고 있다. 로마카톨릭, 이슬람이 다수는 차지하는 국가들은 동성애 이슈를 어렵게 하고 있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때 캐나다는 선언문 초안에 평등조항으로서 "성적 지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반서구적인 수사학은 차별을 정당화시켰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스타일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국제인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논의수준은 다음과 같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1993년 Mr. Louis Joinet(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 프랑스)씨는 호모비아와 인종에 관한 새로운 포럼에서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연구과제가 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5년 8월 그는 AIDS 혹은 HIV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결의안에 상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주변화의 결과로 HIV 전염이 확대되면서 "경제 사회 법적 지위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고통"받는 아홉가지 그룹을 언급했다. 그 리스트에 동성애는 포함되지 않았다. Mr. Louis는 이 카테고리에 동성애가 추가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Ms. Warzazi와 Ms. Gwanmesia는 수정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열개 나라가 수정조항을 찬성했고 다섯개 나라가 반대했으며 여섯 개 나라가 기권했다.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여성운동과의 연대 -이 사회의 모든 성억압을 넘어서

국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정소연

우리 사회에는 참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덕으로 칭송되어지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며 그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가장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은 신의 섭리인 이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지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조건이 꼭 이성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생식을 위한 이성애의 논리가 언제부터 생활의 논리가 되었을까?

인간사회에서 동성애가 존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성애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했었던 것이었으며, 그것은 성행위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는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제도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의 동성애가 고명한 것으로 추앙받았으며(물론 그것은 여성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중세 기독교사회에서도 동성애는 비밀리에 자행되었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적 행위에 관한 규제는 간혹 있었지만 동성애자라는 특별한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한 적은 없었다. 동성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탄압이 생겨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이후부터 이다. 가족의 노동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협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현재도 동성애자들은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이성애를 기본으로 한 사회의 온갖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서 마저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성억압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까? 원시 공산주의 모계사회에서의 남녀간의 평등 혹은 여성의 우월적인 지위는 사적소유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제도를 성립시키고,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일부일처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 가족에 대한 환상과 함께 또다른 사회억압의 방편으로서 한쪽의 성을 더욱 억압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동성애자와 여성에 대한 탄압들은 각기 과학이라는 담론을 등에 업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갖가지 이론들로부터 시작하여, 2세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며 여성의 흡연, 음주를 규제하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나 동성애자를 태어날때부터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별종의 인간으로, 뭔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성도착증으로 치부하며 AIDS의 원인이 동성애에 있다는 등 등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이나 동성애자는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거나 별종의 인간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는 것(혹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여성이나 동성애자는 자신들을 과학을 이유로 규정하고 연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을 돈많고 한가한 여성의 소일거리 정도로 폄하하며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동성애자들을 변태적 행위를 하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것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펼쳐내고 있다. 여성이 가정을 뛰쳐나오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 욕구를 펼쳐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듯이,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에 대한 입장들을 밝혀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와 여성 모두가 가부장제에 기초한 이성애제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성애적 성적 성향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도 아래에서의 교육과, 도덕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강요되는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이성애 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성 이분법 속에서 여성을 가부장제가 원하는 역할로 교육시키며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성이분법은 또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로서 작용하는데, 동성애자 억압은 이성애 제도가 만들어 놓은 성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된다.

동성애자 운동에서도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은 동성애자 내부에서도 여성과 남성이라는 분리가 적용되고, 그에 기반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성에 대하여 자유롭다고 하는 동성애자 내부에서도 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레즈비언과 게이는 서로 다르다. 여성은 남성애에 비해 가족이나 전통적인 규범에 더 묶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기가 더욱 힘들다. 여성은 성기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여성끼리의 성관계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처지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다르지만 서로를 어우르는 연대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감할 것이다. 다만 여성/남성, 게이/레즈비언으로 자신들을 나누는 모습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성이분법의 논리에 부합되는 분열의 논리인 것이다. 또한 같은 동성애자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계급간의 갈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 같은, 성을 이유로 억압받는 사람들부터 이러한 차별들을 없애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한 한걸음 전진일 것이다.

IMF가 낳은 대량 정리해고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여성이나 동성애자는 우선 정리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이나 동성애자들 나아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들을 우리는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여성해방운동과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모두가 이성애 제도를 이유로 한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전반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연대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동성애 해방운동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성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들과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공통점을 가진 이 두가지 운동또한 힘을 모아 성억압에 대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동성애자 해방운동이나 여성운동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소수이기에 모든 성억압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힘을 모아 세상을 변혁해야 한다.

난 나야! 동성애,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성애적 세계관이 득세하는 사회. 뭐야 이젠?

왜 나 같은 동성애자들은 살기 힘들다고 들 할까?

음. 동성애자로서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않은 일이지.

우리는 왜 길거리에서 키스하면 안되는 거야?

전철 안에서 동성애 잡지를 보는데 왜 자꾸 눈치가 보이지?

커밍아웃...너무나 힘든 일이야.

난 레즈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나를 남자로 보는 거야?

그냥 밟아 버릴까? 아님 한번 끼를 떨어봐?

1. 한국 사회에서의 성

우리가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가장 크고도, 오랫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는 동성애자인가 봐" 라고 느끼게 되는 사실 그 자체이다. 이 사회에서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개인 동성애자들이 간직하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직까지 이 사회는 동성애, 동성애자 집단의 특수성, 성(sex) 개념,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구분,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상당히 경직된 사고의 틀을 고집하고 있을 뿐더러,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반면, 한국 문화의 다른 면을 보면, 청소년 시기에 폭 넓게 퍼져 있는 동성간의 관계(우정의 개념을 넘어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관계)에 대해 대단히 유연한 것도 사실이다. 길거리에서 여학생들끼리 팔짱을 끼거나, 남학생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지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들, 가족 내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적으로 접촉하는 사례가 많다. 은밀한 곳이 아니더라도 동성끼리 서로의 성기를 만져주거나 '장난' 삼아 건드려보는 일도 많다. 이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나타난다. 서구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사회가 마치 동성애의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들 말한다. 하지만 단지 이를 성적 행위가 아닌 장난스러운 행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는다.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개인들이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러한 사회적 용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마땅히 뛰어넘어야 할 '우정'으로 폄하하도록 강요한다.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어릴 적의 장난끼 어린 모든 행위를 잊고, 사회의 구성인(구성품이라는 표현이 더 옳지 않을까?)으로 변모하기 위한 고뇌의 시기이기도 하다. 마치 성년식 의례처럼.

2.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모든 사회, 정치적 제도가 이성애의 관념에 의해 짜여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더 더욱 고민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 자살사례중 30% 이상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자긍심을 느끼며, 단체를 결성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앞장서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불과 몇 년전의 상황과 지금의 그것은 다르다. 동성애를 이해하려는 이성애 사회내 일부의 노력들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동성애가 우정으로 동성간의 우정으로 치부되거나 상업광고에 딱 들어 맞는 별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각설. 이 글에서는, 그렇다면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시기별로 발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 그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 발달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독자들께서는 "나는 어느 상황에 속할 수 있을까?" 반문해 볼 수도 있

겠고, 사례로 들어 놓은 분들의 경험과 자신은 어느 점이 유사하거나 다른가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구요? 재미있으니까...

(이 글에 실린 경험담은 본인들의 동의하에 게재됨을 밝힙니다)

3. 정체성 발달의 요인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에 대한 답변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성적 흥분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됩니까?"라고 묻는 질문처럼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땡기니까. 그 대상이 단지 동성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것이다.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할 뿐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신체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게다가 성장기에 겪는 성적 경험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경험이란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타인이나 어떤 개념, 행위, 이미지, 관념으로부터 느끼는 감정과 심상, 사고를 어떻게 다시 그 대상에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체 접촉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타의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나올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지닌 정체성을 미래의 잠재적인 접촉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발달이라는 것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환경에는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친척 등의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가 포함된다. 지식이라는 면은 오히려 성장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의는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느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의학 분야에서 동성애적 정체성의 형성 요인을 연구한다는 것도 그 현상이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공허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왜 동성애자가 되었습니까?"는 이성애자에게 "당신은 왜 부인(혹은 남편)과 섹스를 합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다. 게다가 그러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동성애나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연구 대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이 발달하게 되는 요인보다는 그 과정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인권단체들이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 정체성 발달이론

간단히 말해서 "아! 나는 동성인 사람이 땡겨. 어! 이상한걸."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걸. 이걸 어쩌지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증상이 더 심해져. 이를 어쩌?"라고 생각만 하다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래 나는 동성애자인가봐"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 시기까지는 사실 동성애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서 다른 동성애자들을 알게 된 후에 "나말야, 동성애자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자.

네스(Nass, G)와 리비, 피셔(Libby, R & Fisher, M)라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개 이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시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환상이나 욕망을 경험하고, 자신이 남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그 원인을 동성애에 대한 끌림으로 의심하게 된다.

두 번째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동성과 접촉하면서 그러한 의심을 확인하게 된다.

세 번째 시기에는 이 모든 경험을 기초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확신하게 된다.

다음은 카스(Cass)라는 학자가 제시한 정체성 발달의 6단계 모델이다.

첫째, 정체성 혼동의 단계이다. 이성애적 환경에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감정으로 느끼고, 정체성을 갈등하는 시기이다.

둘째, 정체성 비교단계이다.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이나 가족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묶이지 못하고, 자신이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한다.

셋째, 정체성 관용의 단계이다. 동성에 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단계이다.

넷째, 정체성 용납의 단계이다. 이 때가 되면 동성애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다섯째, 정체성 자긍심의 단계이다. 자신이 용납하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사회의 반응간의 부조화로 갈등하지만, 이성애자들의 우월성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며,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이를 밖으로 드러낸다.

여섯째, 정체성 통합의 단계이다. 자신의 동성에 정체성을 자신의 다른 모습(자신의 다른 활동 영역)에 통합시키면서 동성애와 이성애라는 이분화된 상태에서 바라보지 않게 되는 단계이다. 카스의 이론은 앞의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트로이덴(Troiden)은 민감화, 정체성 혼동, 정체성 가정, 언약이라는 4단계설을 주장했고, 애트킨슨(Atkinson)은 다수집단내에서 소수집단이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동조의 단계에서 개인은 우세한 다수문화에 동의하다가 자신이 속한 소수집단의 가치체계와 우세한 다수집단의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다수집단의 문화에 저항을 하는 동시에 그 반대입장에 대해 몰입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는 앞의 단계에서 협소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가 되돌아 보게 되고, 집단에 대한 몰입과 개인의 자율성간의 갈등을 보인다. 마지막에는 자기충족감을 갖게 되고, 이전의 경험전반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보이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성적정체성 발달이론들의 공통적 요소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인식이 발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성적정체성의 발달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동성애나 이성애 사이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럼 구체적인 개인들의 사례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의 적용성을 고려해보자.

5. 제가 어떻게 살아 왔나구요? (개별 사례)

우선 한 게이분의 경험을 물어보자.

(이○○-게이) - "저는 어릴 때 외가댁에 자주 갔어요. 방학 때마다 갔었죠. 그래서 비슷한 나 이 또래의 삼촌 친구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 오면, 전 왠지 피하게 되더라고요. 수줍음을 좀 탔죠.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느낌(부끄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중 한명이 제 성기를 만져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의 것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는 그냥 장난이었다는 듯이 그냥 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무척 창피함을 느꼈어요.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한 친구와 이불 속에서 밤새 키스하고, 애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는 얼마간 사귀었죠.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관계는 깨지고, 고등학교에서는 회한하게도 아무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 그 친구가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동성애 관계로) 생각한 거였어요. 군에 가서는 여러 고참들이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싫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한 사람(고참)을 잠깐 사귀기도 했어요. 거의 신체적인 접촉만 했어요. 그게(신체접촉) 다였어요. 그리고 통신을 하면서 나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보고서 커밍아웃을 쉽게 하게 되었죠. 이 때 저는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기도 하고,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애자 친구들에게도 커밍아웃을 쉽게 했는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들의 반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동성애자들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그게 바로 제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 게이분은 "동성인 사람에 대해 수줍음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성적 긴장감을 나타낸다. 긴장감은 욕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을 동성과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다. 즉, 그는 동성관계를 계속 머리속에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동성애의 감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늘 잠재해 온 감정을 같은 동성애자들에게 털어 놓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결국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확신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에는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자신이 동성애자로서가 아닌 하나의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본능'을 깨닫게 된다.

다음은 장○○씨(女, 바이 섹슈얼)의 경험담이다.

"저는 어릴 때나 성장기 때 별다른 (바이 섹슈얼로서의) 경험은 없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에는 남자 애인도 있었죠. 성년이 되고 나서 한 (여자)후배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사귀었죠. 지금은 여자 애인도 있고, 남자 애인도 있어요. 모두에게 제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알렸어요. 물론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대한 제 관계도 원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 후배와의 성접촉이 더 만족스러워요. 남자 애인과는 그다지 희열감같은 것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서 끌려온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서 사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바이 섹슈얼인 사람에게 배타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개념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관계를 인간 대 인간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분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에 대해 보통의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만큼의 고민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오히려 남성들과 함께 여성들이 받고 있는 억압적상황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은 박○○씨(게이)의 경험담이다.

"제 첫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성기를 내놓더니 오럴 섹스를 요구했어요. 그것이 첫 경험이었어요. 그전에는 물론 동성이 풀린다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때의 경험은 그다지 아무런 생각 없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한 성장기의 기억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동성애'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이런 제 감정을 보인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한 형과 같이 지내다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함께 자다가 패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 밤을 끝으로 그를 떠나 보낸 것이 후회로 남아요. 지금 같으면 정말로 용감하게 대수를 했을 것 같은데... 동성애자들을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의 성적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동성애, 이성애라는 말도 알지 못했고, 그런 개념을 접할 기회도 없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이 문제(자신의 성적정체성)가 걸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냐, 혹은 이성애자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봐요. 지금은 사람을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해요."

이 게이분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따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이라는 자아의식 전면에 대한 고민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아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가 지적인 바와 같이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느냐일 것이다.

한 개인의 성적정체성은 분명히 발달한다. 개인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발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분의 사례를 들어 보면서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계속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성적정체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적정체성은 자아의식과 함께 발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소외감, 자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감마저 상실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문화적 긴장 구조와 억압의 상황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성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 역시, 아니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자신의 성적정체성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의식과 함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투사시킬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들은 어떤 한 개인의 성적정체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성적 소수집단이 사회 전반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느끼는 갈등과 외로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호세

■ 이 글에서 소개한 성적정체성 발달이론은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지음, 학지사, 1997에서 인용한 것임.

대동인 조직정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의 원칙

-결정안-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 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2. 우리는 성별, 인종,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어떠한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4.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5.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6.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노동자, 여성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10.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1학기 홍보, 90여명 참가

수도권 20여개 대학과, 서울지역 사회과학 서점들에 1, 2차 홍보를 마무리지었다. 98년 3월과, 4월에 진행된 1학기 1, 2차 홍보는 연인원 9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대자보, 포스터 등의 부착 뿐만 아니라, 협조공문 전달, 신문판매 등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화여대 등에는 '모든 대학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대동인은 한총련 학생들의 집회를 비롯해, 여러 학생단체들의 행사에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1학기 홍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와,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등은 우리의 홍보작업을 도와 줌으로써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학내 여성단체들과 대동인과의 연대의 고리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단체들은 5월 8일 토론회를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였다. 이번 1, 2차 홍보에서 대동인은 단체 자체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한 논의와, 에이즈 등 동성애자 억압에 대한 논의 등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여러 대학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개편

1. 반체제 기획

대동인 활동체계가 지부체계(학교별 체계)에서 반체제로 바뀌었다. 지부체계는 지부별로 회원수가 매우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활동이 불균형하며, 지부별로 별도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 등이 반체제로의 주요한 전환계기이다. 물론, 앞으로도 지부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중심적인 활동 단위는 반이 될 것이다. 현재 4개의 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반원의 연락과, 회비, 신문판매, 홍보 등의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할 목적으로 각 반별로 반장을 선출했다.

- 1반장: 이준희
- 2반장: 이소윤
- 3반장: 나선우

4반장: 제희

2. 정책국, 대외협력국으로 명칭과 업무변경

국장: 임태훈 (유임)

연대사업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순수한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기획업무는 국장회의로 전가하였다.

3. 정책국 산하 선전부, 홍보국으로 승격

국장: 정민수 (유임)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홍보업무를 위해 국으로 승격시켰다.

4. 사무국, 총무(회계업무)와 대표비서(회원관리+보좌)로 분리

총무: 정병선, 대표비서: 김호세

기존의 사무국 업무가 과다하였기 때문에, 업무를 분리하였다.

독립적인 직책으로써 총무직을 확립하고, 회원관리와 대표 업무를 보좌할 대표비서직을 신설하였다.

5. 후원회장 공식, 후원회 부회장이 후원회장 권한대행으로

후원회장 권한대행: 최이연

활동계획 (5-6월)

5월(확정)

1일: May Day 집회 참여, 메이데이 성명서 발표, 전단배포

3일, 5일: 인하대에서 교육, 토론 (인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8일: 토론회 개최 '동성애, 비정상인가!' (인권운동사랑방,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 서울시립대학교 언론협의회와

공동주최)

12일: 토론회 개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가!'

(인하대학교 공대학생회와 공동주최)

12-15일: 인하대 대동제 기간 동안 연대주점

17일: 소풍 (예정)

하순: 人選 (예정)

6월: 7월 학술제 준비기간 (예정)

초순: 스티커 홍보, 동성애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중순: 기말고사)

하순: 스톤월 기념집회

대표 한마디

IMF 환파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예외이지는 않아서, 대동인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두 힘들다고들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대동인 살림도 주름살이 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쓰던 사무실도 하나로 줄이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중에도 몇몇은 먹고살기 바쁜 이유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의 후원회장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힘든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무리하지 말자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내부정비를 한답시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일만 하자고, 지낸 두달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조용하게 살기란 정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관만 해온 것은 동성애자 인권단체라는 대동인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월을 시작으로 우리는 다시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동인의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기반부터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장을 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고 동성애자와 같은 이익을 지닌 이들을 꾸준히 설득할 것입니다.

5월을 기점으로 대동인은 더욱 탄탄한 조직망을 가진 단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핑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성애자에 대한 더 큰 공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거대한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때입니다.

- 대동인 대표 양지용

대동인 교육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1차, 3차, 4차 대동인 신입교육에 참여했다. 1차 교육은 정체체성, 동성애자에 대한 바른 호칭, 커밍아웃 등 여러가지 기본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교육자료에 있는 내용 이외로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평등의 문제, 반대와 도착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전자는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또는 신체적으로 불명확한 성의 소유자 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의 문제고, 후자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혼비 반태·도착이라고 불리는 사도마조히즘이나 마스터베이션 등을 실제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3차 교육은 억압이란 무엇인가, 동성애자 억압의 이유,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주로 교육자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원 각자는 억압을 어떤 형태로 느끼고 있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주요 이야기되었다.

4차 교육에선 3차 교육의 주제들을 더욱 심화시켜 토의했다. 이 때 회원들 사이에서 교육자료에서는 동성애자 억압의 이유를 단지 자본주의의 운영 원리에 의해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이외에 동성애를 억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거론된 다른 이유로는 가부장제, 유교의식의 잔재,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 등이 있었다.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 자체인가 아니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인가의 문제도 이야기되었다.

신입교육의 목적은 회원들이 동성애정체성에 대해 또 현재 동성애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인권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성애자로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적바탕을 제공해주는 것에 있다고 본다. 나는 내가 참여한 세 번의 교육이 이러한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첫째, 교육자료의 문제다. 자료가 다양한 주장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성애자 억압의 이유를 자본주의 운영 원리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고, 가족주의에 관한 부분도 가족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 둘째, 교육진행방식에 대한 것이다. 1차 교육은 주로 교육담당자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3차는 각각의 의견을 말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4차는 참석자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방식을 미리 정하여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테리

동성애에 대한 편견

동성애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도 잘 정리해 반박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위축시키곤 한다. 특히, 나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때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동성애 편견 섞인 말을 할 때면 더욱 그러하다. 그럴 때 머리속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자신감 생길 것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이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다.", "동성애자는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등등의 여러가지 말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해 보려고 한다. 우선 동성애에서 에이즈가 생겨났고, 동성애자는 결국 에이즈에 걸려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AIDS라는 질병은 그 감염 경로가 너무 분명해서 예방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한 전염병이다. AIDS는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그 집단을 가리지 않고 안전한 성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즉 이 병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한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성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감염의 가능성이 정해진다. 성행위 외의 감염 경로는 병원균이 들어 있는 피를 수혈 받거나 마약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AIDS균이 묻어 있는 주사바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미국 유럽의 경우 AIDS 감염자 비율이 줄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AIDS는 위생과 보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리가 필요한 그저 병일 뿐이다. 다음으로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동성애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이고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어떤 심리 증상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을 지닌 사람이 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 인해 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신들의 인생을 잘 꾸려 내고 있다. 다만 사회적 억압과 편견으로 고통스러울 뿐이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성애자를 억지로 동성애자로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없다. 1990년 미국 심리학자 협회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치료방법은 의학적으로 효용성이 없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에게 해를 줄 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상용되었던 치료법이라 불리는 방법(동성애에 대해 스스로 혐오증을 유발시키는 치료법, 호르몬 치료법, 뇌 전두엽 절제수술, 종교, 심리치료법)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와 성관계를 가질수 없는 육체적·결합이 있고, 타의에 의해 동성애 성경험을 가지면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는 주장들도 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의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결합이 있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한다면, 육체적·정신적 결합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성애자들은 모두 동성애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속에서 그 환경이 요구하는대로 자신의 행위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보고 듣고 배운대로 이성애의 교제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교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본래 성향을 찾게끔 된다. 이성애의 성경험이 있는 동성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애에 대해 예로틱한 감정이 생기지 않기에 자신의 본래 성향인 동성애를 따르는 것이 본능과 같다고 말한다. 만일 단순한 호기심에서 동성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그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남성동성애자는 모두 여성적이고, 여성동성애자는 모

두 남성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몇몇 동성애자를 보기만 하여도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동성애자들 중에 여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여성동성애자들 중에 남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남성동성애자들 중에 남성적인 사람도 있고, 여성적인 여성동성애자들도 있다. 동성애자들은 반대의 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은 한국에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뒤섞어 인식하는 것과 맞물린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이성의 육체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들의 성적 성향이 동성을 행하고 있다는 점만 이성애자와 다른 것이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를 동성애에 끌어들이려 한다면 말이 있는데,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겪어 온 정신적 갈등과 육체적 욕구의 불충족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시각 등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누가 남에게 권유하겠는가. 다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뿐이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이 경우 결과는 명백하다.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없다. 만일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본래 양성애자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그 성향을 숨기고 살아온 동성애자이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동성애자들의 모든 인간적인면을 도외시하고 성적인 행위에 초점에 맞추려는 경향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다른 일까지 그 경향에 따라 추론을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고 동성애자들끼리는 친밀일수록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릇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성애자들의 삶이 개인에 따라 다르듯이 동성애자들의 삶의 방식도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르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보다 성욕이 강하고 남성동성애자들은 모두 난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성욕의 정도는 동성애자나 혹은 이성애자나 하는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나 가치관을 떠나서 동성애가 완전히 이해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는 음지로 숨어둘 수밖에 없다. 행동 성향이란 점도 개인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개인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들 중에는 한 상대자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혀 동성애의 성 관계를 갖지 않고 혼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여성동성애자는 남성과 나쁜 경험으로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에 남성과의 잊지 못할 나쁜 경험이 모든 여성을 동성애자로 만든다면 한국과 같이 남성의 권위가 비교적 절대적인 사회의 여성들은 대부분 동성애자일 것이다. 그러나 성적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왔다갔다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동성애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있다. 언론이나 학교 등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유포시켜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으로 보게끔하고 동성애자 자신도 이러한 논리에 자유롭지 않게끔 만들고 있다. 편견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애자도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터부에서 상식으로]를 인용하였다.

-나선우

리듬타고 박타고

the smiths

Burn down the disco!
 Hang the blessed D.J!
 because the music that they constantly play
 it says nothing to me about my life
 디스코텍을 불태우자. 저 축복 받은 D.J를 교수형에 처하자.
 그들이 계속해서 틀어대는 저 노래들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PANIC] the smiths-



80년대의 한 영국 밴드가 한국의 D.J를 알고서 이런 노래를 썼을지는 모르지만 90년대 후반의 한국에 사는 동성애자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가사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 노래를 불렀던 이들은 (영국왕실에 유난히 악감정이 많았던 사람들로써) 영국 왕실을 두고 D.J라고 표현했을수도, 정치인들을 두고 그렇게 표현했을수도 있을것이다. 혹은 형편없는 음악만 틀어댔을 당시의 DJ들을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을수도....

귀여운 어린이들의 코러스가 "저DJ를 목매달아라 Hang the DJ"라는 끔찍스런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PANIC이라는 곡은 The Smiths라는 밴드가 12년전에 발표한 곡이다. 창간호에서 소개한 바 있는 Morrissey가 몸담았던 밴드이자 80년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밴드였던 스미스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Details지에서 조사한 "80년대 최고의 밴드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란 앙케이트에서 스미스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낯선 이름이었고, Alternative Press에서 10년간의 베스트 앨범을 99개 선정한 목록에서 Nirvana의 Nevermind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스미스의 앨범 (The Queen is dead)역시 국내에선 95년에야 발매되었다. John Lennon- Paul McCartney이후 최고의 작사, 작곡 컴비로 불리는 모리세이 - Johnny Marr 가 주축을 이루었던 스미스는 84년부터 87년까지 4년간 활동했지만 그들이 팬들에게 그리고 후배 음악인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90년대 결성된 쟁쟁한 영국밴드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선배밴드로 스미스를 꼽는 것은 그들의 음악이 비틀스나 벨벳 언더 그라운드와 같은 고전적인 밴드들처럼 아직까지 살아 있고, 수많은 후계자들에게 의해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을 동시대적 체험을 공유할 수 없었고 1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마치 학습하는 기분으로 그들의 음악을 만나게 됐다. 78년 미국의 심야극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David Linch의

Eraserhead를 90년대에서야 접할수 있었던 영화광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면서 당혹감을 금치못했던 것과 같이 스미스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들의 음악을 들었을때 적잖게 실망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동시대적 체험이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만약 마이클 잭슨과 휘트니 휴스턴 이 판치던 그 시대에 스미스를 들을 수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의 음악에 열광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보파리 부인을 읽은 것 처럼 스미스의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그들의 음악을 들어 봐야만 한다고 말하려는건 아니다. 그들은 당시의 누구도 따를수 없는 세련미를 갖추었고 이단아적인 가사와 언더적인 음악성을 팝적인 감각으로 훌륭하게 버무려 내는 기술도 있었다. 대중음악의 고전으로 불려도 좋을만큼 이들의 음악은 세월에 의해 쉽사리 퇴색되지 않은 그 무엇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자니마의 작곡과 기타 연주 솜씨 모리세이의 워트로 가득찬 가사들과 개성있는 쇼맨쉽 독보적임을 인정 받는 앨범 자켓 아트 워크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팬들을 사로 잡고 감동시키고 또한 간간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자니마의 청명한 기타에 매료된 모리세이의 잔뜩세운머리와 뿔테안경과 보청기에 열광하는 긴 진주목걸이를 하고 꽃을 든 관중들로 스미스의 공연장은 항상만원이었고 독특한 스미스만의 공연문화를 이루었다. 형식적인 부분 뿐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늘 물의를 빚거나 열광

의 대상이 되는 폭력적인 혹은 위력적인 것이었다. 60년대 (모리세이의 고향인) 맨체스터에서 있었던 유아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Suffer Little Children)은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팔아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서 유가족들과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은적이 있었다 후에 모리세이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설득했고 유가족들중 일부가 스미스의 편에서 변호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폭력 병적인 도박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영국왕실에 대한 실랄한 조롱에 가까운 풍자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숭배 그리고 작사가인 모리세이 자신의 이야기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독, 우울증, 채식주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암시를 다룬 노래들을 끊임없이 발표함으로써 스미스는 끊임없이 화제를 뿌리곤 하였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란역시 그중 하나의 화제거리이다. 모리세이는 스미스 시절부터 애매모호한 가사로 게이가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들을 받아야 했는데 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러하다. "내가 쓰는 가사들은 어떤 특정 성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난 그 누구도 따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게이 문제와 관련된 말들은 특히 프레쉬와 접하면 무척 위험해진다. 확실히 그들은 내가사에서 뭔가 수상쩍은 냄새를 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단지 어떤 한쪽의 성별에만 생각을 고착시킬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쓴다. 게이가 듣던 누가 듣던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내가 게이들의 대변인처럼 여겨지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94년에 모리세이는 스미스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스미스가 펑크의 신음에 대한 섬세한 미와 매력의 대담이었다구요?그럼 우리가 포크그룹이었다는 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표현 그 자체로 폭력적인 존재였습니다." 84년 지금은 스미스 고전이 되어버린 (the charming man)이 담긴 앨범 (the smiths)를 내놓고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84년 (Hateful of hollow), 85년 (Meat is Murder), 86년엔 그 유명한 명반 (the Queen is Dead)를 발표한다. 그 이후로 87년에 (the world won't listen)이라는 편집앨범을, 공식앨범으로는 (strangeways, here we come)을 마지막으로 해산했다. 해산후 88년에 유일한 라이브 앨범인 (Rank)가 발표되었고 90년대초 멤버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속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2장짜리 베스트 앨범이 나와 있다. 95년 모리세이의 걸작 (Vauxhall & I)의 국내 발매를 계기로 스미스의 이름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 스미스와 모리세이의 독집들이 국내 발매반 또는 수입 음반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유명레코드점에서 스미스의 거의 모든앨범을 구입할수 있다.

- 김지원

책과의 동침

최이연 시집 <물오리>



모든 異性戀愛者들에 대한 경고

푸르고 흰 숲의 화염
 속으로
 길은 나 있다
 그 길을 비쳐 마물은 한 쪽 모서리로
 치워져 있고
 길은 자신에게 달려간다
 길 가운데 사람이 서 있고
 돌아보는 눈빛
 흰 화염의 불길로
 찌르물려져 있지만

분노는 아니다
 다만
 강으로 가라앉는 철길 속으로
 온 몸이 가려울 뿐이다
 그들이 부르짖는다
 진화한 살만큼이나
 변명한 글썽으로
 너희들만이 歷史를 일구었느냐!
 더러워서 더러워

삼키는 말들
 우리들의 快樂만이 反亂이니?
 그리고 세상아
 모든 革命은 反亂에서 시작되고
 反亂이 위험한 것은 革命이 옳기 때
 문이다
 -시집 <물오리>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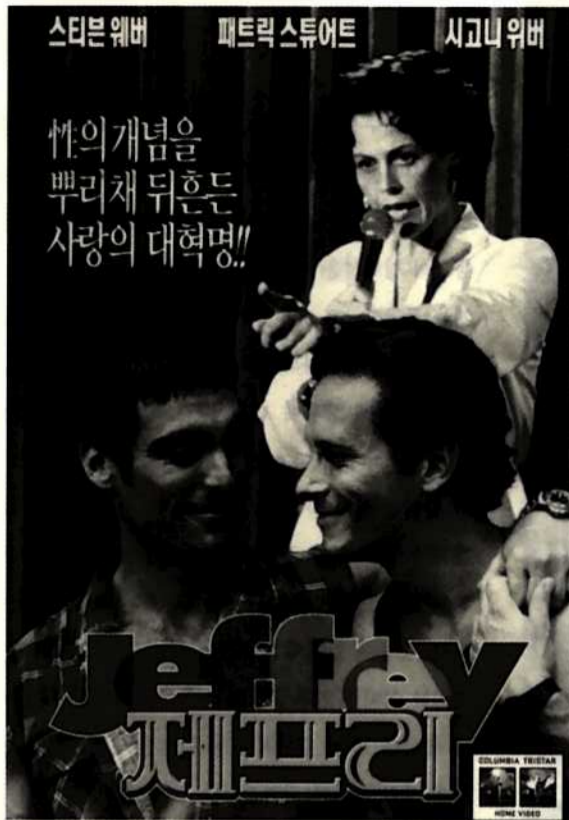
구입처: 대동인 사무실
 통신판매가능
 문의: 923-0609
 나우누리ID: 다이크

최이연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남.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함.
 잡지사 기자등의 직업을 거쳤고,
 지금은 낮에 주로
 잠을 자고 밤에는 씩스런 상상을 하며 지낸다.
 그리고 <진달래>를 좋아하는 이반 남자이다.
 시집 <물오리> 출간.

영화나 팝콘이나

Jeffrey

Jeffrey는 코믹영화이고, 애정영화이고, 게이영화이다. 덧붙이자면 3류 영화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이 영화를 3류라고 매도하는 이유는 연기, 구성, 촬영이나 음악 그 어느것도 관객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3류이기에 가능한 노골적인 만큼의 솔직함과 유치스러운 만큼의 해학을 보여주며 기존의 이성애적 가치관을 가볍게 비웃는다. 제프리는 퀴어운동(1980년대 이후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지칭함) 이 낳은 코메디이다. 게이판 <델마와 루이스>라 불리는 Living end(리빙엔드), 게이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Priest(프리스트), 혹은 여타의 심각하고 진지한 게이 영화들이 70년대에도 충분히 나올수 있었다면 제프리는 80년대 이후에나 나올수 있는 영화다. 대부분의 (코미디가 아닌) 게이영화에서 게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직장동료로부터 억압당하고 그러한 자신을 사회로부터 이질화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나는 왜 게이로 태어났는가, 사람들은 왜 게이를 혐오할까, 왜 게이들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릴수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그러한 homophobia(동성애 공포증 - 포비아란 집미사는 공포증 또는 혐오증을 뜻한다) 를 극복하지도 못한채 "게이는 비정상도 변태도 아닙니다. 우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관객을 설득하려 한다. 게이들이 검은 턱시도를 입고 시위를 벌이거나, Faggot(여성적인 남자란 의미로 흔히 게이들을 경멸하는 용어로 사용됨)적인 모습을 부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마초화 (machorization)했던, 이성애자들과 같다는것을 보임으로서 정상의 궤도안으로 편입되기를 바랐던 80년대 이후의 퀴어운동은 더이상 진박치는 설득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성애자들과 같아지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동성애란 개념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대상화를 거부하고 동성애적 정체성안에 간혀 이리저리 채이고, 떠밀리는 게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마치 동성애라는 언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 소급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프리는 이러한 퀴어정치가 만들어낸 유쾌한 낭만이다. 제프리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와 트랜스젠더와 이성애자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름을 지닌채 하나의 정체성안에 묶인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섹스한다는 정체성이다. 그들은 모두 pride(자신감)로 충만해 있으며 자신의 성적 성향 또는 방향성의 정당성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적인 현실은 영화 곳곳의 에피소드에서 코믹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인 제프리가 스티브의 구애를 받아들였을때 길가던 행인들이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나, 섹스문제로 고민하는 제프리에게 폰섹스나 마스터베이션을 권유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잠깐 미소를 띄우게 될 것이다 (물론 심하게 일그러

진 얼굴을 할 이성애자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호모포비아가 아니라 AIDSphobia(에이즈 공포증)이다. AIDS와 safe sex는 사실 이 영화의 주제라고 볼수 있다. 게이인 주인공 제프리가 세이프 섹스의 번잡함을 참다못해 섹스중단을 결심한다. 그는 섹스에 대한 욕구를 일과 운동을 통해 따끔해 해소하기로 하나, 체육관에서 근육질의 남자 스티브를 만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스티브는 HIV 양성반양자였기 때문이다. 영화는 제프리가 에이즈포비아를 극복하고 스티브와 사랑에 골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에이즈와 세이프섹스에 대해 이렇다할 메시지를 얻을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랑해라. 단 안전하게!" 이런 무심한 혹은 진실된 충고가 영화가 이야기 하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재미는 어떤 메시지에 있는게 아니라 단순한 눈요기 거리가 꽤 많다는데 있다. 파티장에서 웨이터들의 스케어 댄스 장면이나 곳곳에서의 키스씬은 게이관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낮침은 배우들의 깜짝 출연도 볼만하다. 시고니 위버는 사이비 전도사로 재미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성당에서 제프리를 유혹하는 신부는 버드케이지에서 트랜스젠더로 열연했던 나단 레인이다. 간디 등에 출연했던 패트릭 스투어트의 연기도 이색적이며, 성전환자와 함께 사는여자로 잠깐 나오는 배우는 시스터 액트에서 고성을 뽐내던 수녀로 출연했었다. 그러나 정작 주연배우인 제프리역의 스티브 웨버는 아마추어 이하 수준의 연기로 영화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한 몫한다. 그는 마치 코미디 연기는 연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듯하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잔뜩 경직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제프리같은 영화를 손쉽게 접할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제프리가 코미디 영화이고, 진지하지 못한 영화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이성애주의로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게이코미디를 보며 한바탕웃을 수 있었지만 말이다.

- 김지원

Queer World-Wide

동성애자 노조포럼 열려... (1998/8월/1-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 폭력과 마주하고 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신입사원 고용, 승진, 해고 그리고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사실, 동성애를 범죄 시 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여럿이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 업무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조건 향상과,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많은 노동조합과 국제 노동조합 연합들은 노조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인간의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최근, 차별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들과 실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노조의 전면적인 정책적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가고 있다. 그러나 고작 몇몇의 노조들만이 동성애자에 관한 이슈와 작업 현장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 노조원의 참여는 이러한 전략의 개발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적극적인 노조들은 이제, 그들이 몇몇 노조원에 대한 차별을 눈감아 버린다면, 그것은 노조원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깨닫고 있다.

1998 "노조 동성애와 노동에 대한 회의"는 전세계의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이 일터에서 바로 설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고, 노조와, 고용주와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회의의 목적은 노조 대표들과 고용주, 전문가들의 정치인들을 회의의 일부로서 참여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1998노동조합, 동성애, 노동에 관한 회의의 조직>

이 회의는, 많은 동성애자 노조원들과 노동조합운동에 관계된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의 국제연대가 확산됨에 따라 그들이 수년간 함께 일해온 결과 물이다. 이 회의는, 북미 동성애자 노조 운동가들의 Pride at Work회의와 94년 뉴욕에서 열렸던 ILGA (국제 동성애자 연합) 세계회

의에 참가했던 동성애자 노조 운동가들의 토론에서 제안되었다. 그 제안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50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렸던 1995 ILGA국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회의의 초안은 운영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운영 위 의 첫 미팅은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고민하고, 회의의 포맷을 위한 가안을 상정하고 발전 계획의 개요를 수립하는 시간이었다. 회의는 워크샵과 세미나, 본회의로 이루어지고 특정 이슈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포함 될 것이다. 워크샵 프로그램의 초안은, 노동조건 개선 위한 협력, 특수한 작업장에서의 동성애자 노동자들의 권리, 레즈비언의 위치, 그리고 물론 특별히 동성애자에 관한 이슈로서가 아닌 에이즈 감염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회의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레즈비언과 게이의 차이가 긍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위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제 자문 위원회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있고,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가안들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자문위원회에는 노조, 노동운동 대표들과 서유럽 외의 지역에서 온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회의가 98게이 게임 하루 전에 열리기 때문에, 운영 위는 게이 게임 조직 위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다져 놓은 상태다. 연계는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호텔 예약 서비스 뿐 아니라 공개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 번역/김지원



■ 이번 행사에는 이외 다수의 단체들이 공동참여하고 있다.

창간호 돌아보기

< 비대위 일을 마무리지며 >에 대한 평가

비대위에 대한 다이크 1호의 양지용씨의 평가는 나르메로 사실에 관해 앞으로 대동인이 동성애자인권운동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타 동성애자단체와의 연대의 문제를 조금은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비대위를 통해 다른 단체의 비협조를 확인하고 대동인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대동인 회원 뿐만 아니라 타단체의 회원들에게도 대동인의 성격과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동인은 더 넓은 시야에서 타단체의 회원들도 대동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비대위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얻은 성과를 더 싶었다면 함께 참여한 동성애자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함께 하기로 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거는 내용도 있었다면 훨씬 매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과도기에 처한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 동성애자들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나름대로의 동성애자들의 문화가 그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었다.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동성애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주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도움을 주는 Zipper 사장과 같은 사람들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더 많은 폭리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해방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이끌 수 있으리란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 기획기사 >에 대한 평가

참 좋은 기사였다. 이 글을 통해 남한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동성애자들의 억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현 동성애자들 내부의 문제점도 잘 지적하고 있다. 기획기사에서는 커밍아웃, 가족제도, 동성애자 내부 문제점을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한가지 한가지의 쟁점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앞으로 나올 Dyke 기획기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신문평가토론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커밍아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억압의 구조 단락에서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운동

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과연 대학운동이 살아있는 양심이기를 두려워한 만큼 위기에 빠졌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 이후 일정정도 학생운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등록금문제, 자치권문제, 교육여건 또 정리해고제를 통한 실업의 문제 등에 학생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좀 더 민주적인 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경험에서도 90년 이후에도 학생운동 위기론이 존재했으나 92년 그리고 94년 전지협투쟁의 연대, 95년에는 전. 노 구속에서부터 교육제정, 노수석 투쟁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함께 참여해왔다. 뿐만 아니라, 1월 파업과 김영삼 퇴진과 대선자금공개요구 아래 벌어진 한총련 투쟁들은 여전히 학생운동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운동에서의 문제점도 많지만 그 문제점들을 고치고 보완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과연 위기일까 하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는 것도 재미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11면에 있는 내용들은 참 좋다. 한국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함께 연대해야함을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다.

- 이준희

발신: 리후소(게이) | 수신: 대동인 | 주제:운동과 연구 | 날짜: 1998. 4. 16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설문지와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주머니 사정이 풀렸으니, 책과 몇몇 복사물들을 함께 해서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현재의 동성애와 관련된 진보적인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진보성이란...보내주신 소식지를 통하여 나름대로 대동인의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이야. 실제로 밖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궁금하군요. 제 생각에 대동인은 Jeffrey Weeks의 이론과는 소개를 통하여 친숙하리라 봅니다. 그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정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운동 상황에 대한 최근 정보는 이 Website를 통하면 조금 빨리 접하고 소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http://www.acu.org/issues/gay/hmgl.html>)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한 심리학자, Dr. Gregory M. Herek의 Website는 대학 시절에는 상당한 운동가로서 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운동이나, 연구나 라는 고민 끝에 연구를 통해 좀 더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시기로 결심하였죠. 연구 중에도 그의 인권운동의 기여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는 '미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주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운동에 있어서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HIV/AIDS에 관하여서는 혹시 대동인이 한국의 HIV/AIDS의료단체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편견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공급이 절대적이라 줍니다. 사실 정치적 운동은 그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소식지를 보면서 정치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동인의 소식지에 학문적 연구의 자리가 들어 앉기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운동 단체라는 조직의 방향성 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학문이 정치성을 떠날 수는 없죠, 그러나 학문의 자리는 그 나름대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어느 기고자가 쓴 글 중에서 동성애에 관한 원인에 대한 연구로서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쓴 것을 보았습니다. 동성애/이성애를 증추하는 부위가 뇌의 시상하부 어디엔가에 있다는 그 부분을 INAH(Intertitial nucleus of the anterior hypothalamus) 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소개한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Queer Science: The Use and Abuse of Research into Homosexuality(동성애연구의 이용과 남용)"입니다. 이 학자는 MIT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인데, 그도 게이입니다. 그 역시도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하여 단순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신화와 사회학 그리고 정치적 입장의 모든 부분에 걸쳐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연구자 역시도 자신의 객관성(?)을 위해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의 원인도 모르는데 왜 동성애인가? 라는 것도 간단하게는 sexual orientation(성적 지향성)이라는 말로 다시 물음되고 있습니다. 즉 1896년 한 정신의학자에 의하여 homosexuality라는 말이 생겨나고 치유(?)를 위해 그 원인을 밝히려 하였지만 이제 1990년도에는 그를 넘어선 heterosexuality의 발달과정은 무엇이며, homosexuality의 발달과정은 무엇이며, sexual orientation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어와 학문에 있어서의 연구의 관심사는....sexual orientation이라는 말에서 orientation이라는 말은 상당히 심리학적인 essentialism(핵심)적인developmental process(발달과정)를 담고 있는 말이죠. 즉,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있어서 innate(선천성)+environmental(환경)+interaction(관계)+personal experience(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sexuality라는 것도 만만치 않죠. 대략적으로 sexuality라는 것은 4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sexual fantasy(성적 환상), sexual attraction(성적 매력), sexual behavior(성적 행위), sexual identity(성정체성) 즉 어느 사람은 동성애의 성적 환상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 연애만 하는 대신 그외의 것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의 성적 환상이나, 매력, 행위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sex role(성역할), gender role(사회적 성역할), sexual role(성적 역할), sexual identity(성적 정체성), gender identity(사회적 성정체성), gender(사회적 성). 이 모든 것도 구별되어야 하겠지요. 이 처럼 정치적 운동이 복잡한 것처럼 연구라는 것도 복잡하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흔히 homosexual이라는 말이 비하적인 명칭이지만, 실제로 그 근원에서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homosexual이라는 말이 현재는 거의 비하적인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homosexual person과 gay 역시도 다르겠죠. 그리고 gay와 이반도 다를테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butch(부치)와 femme(펌)인데 한국에서도 자신을 부치 혹은 펌이라고 말하는 레즈비언 분들의 그 생활양식과 정체성은 어떤식으로 받게 되었지 궁금하군요. 글이 너무 길가요. bisexual(양성애)에 대해선 저도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나중에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네요...그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바라면서...(후소-뉴욕 소재 대학에서 동성애연구중)-(괄호안의 설명:대동인 출판국)

끼적 끼적

왜 나한테 처음으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대동인 물이 좋을까, 안 좋을까? 놀러와 보요. | 소운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대한민국 전 여성의 레즈비언 | terry

I love Dyke | Zhenya(참고로 제나는 러시아인으로 대동인회원임)

게이 여러분! 우리 모두 대동인에 가입합시다. 빨리 가입해요. | 정환

아! 드디어 꽃밭으로 간다. | 군대가는 재진

재진, 기다려. 내가 두피라 갈게. 공격적인 때짜임을 밝히면 군대 안가나요? | 후배

어제 모르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역사나 홍보와 교육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힘내자구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 제희

역시 난 너무 이빠서 피곤하다. 모두들 내 도발적인 이미지에 흥한다. 조심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게이 여러분 그리고 신문 모두모두 보세요. | 모든 게이의 우상 꽃분이

대동인 Dyke 2호...멋지다. 많이 사보슈. | jim78

당당히 동성애자임을 밝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동인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화이팅!!

정현

고대에서 열렸던 노동정치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처음 갈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결국 여기서도 내가 가르친 학생, 5년전 학원에서 답임을 했던 여학생을 만났다. 어... 선생님!... 하고

말을 잊지 못하는 학생... 총각 선생이라고 무척 따르던 아이였는데,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 공감 흔하게 웃어주며, 선생님 이해해요 힘 내세요! 하며 격려해 주었다.

아, 아뵤! 댄 남학생보다 여학생을 만났으면 더 미안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벌써 이번모임에서 만난 제자가 새평이다. 이리다 이번선생(?)이란 칭호가 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 진달래

이번세상 Terry



대동인 주간일정

상근시간 | 오후1-밤 10시(월요일 제외)

- 월요일 | 전체 휴무
- 화요일 | 세미나(대동인 회원 재교육 및 외부 공개 토론) /오후7시부터
- 수, 목 | 누구나 편히 올수 있는 날
- 금요일 | 대동인 국장 및 반장회의 /오후4시부터
- 토요일 | 신입교육 /오후4시부터, 대동인 전체회의 /오후7시부터
- 일요일 | 2주마다 반모임

▶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대동인 월례 총회가 있습니다. /오후7시부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이크문화상 공모

대동인에서는 동성애자 커뮤니티내에 존재하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동성애문화의 질적인 발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많은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지지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소재를 다루고자 합니다. 단, 제출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다이크>에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부문: 시, 소설, 만화, 평론(언론 모니터 포함), 사진, 단편영화, 창작곡, 수기, 논문
자격: 동성애자,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지하는 이성애자
공모마감: 1998년 8월 15일(당일 소인 인정)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97호110-600
당선 발표: 추후 개별 공고 및 <다이크>에 작품을 선정하여 게재함

외부광고 1

Zipper

● 지하 1층
Zipper

해밀턴 호텔

Zipper

영업시간 | 오후4-새벽2시
 수요일 | 칵테일 파티
 phone | (02)796-8876

수익금의 일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위해 쓰여집니다.

Zipper

796·8876

동성애자와 노동자의 연대를 위하여

메이데이 108주년 기념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성명서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이데이는 투쟁하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날이다.

1886년 5월 1일, 일주일에 7달러의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12-16시간 이상의 노동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 뜻을 이어 받아 1889년 제2인 터내셔널에서는 1890년 5월 1일에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1일 8시간 노동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시기는 불황이었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투쟁을 했다.

이처럼 메이데이는 노동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여건 개선이라는 과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지는 세계적 기념일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해방 전인 일제 치하에서부터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투쟁과 기념행사를 치러냈다. 80년대 노동자 투쟁의 파도를 타고, 89년에 100회 메이데이 행사가 한국정부 수립 후 최초로 노동자의 손으로 치러졌다. 그후 노동계급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김영삼은 94년 5월 1일을 공식적인 메이데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로 메이데이는 108주년을 맞는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 투쟁을 조직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지배자들과 사장들이 파탄낸 경제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 경제위기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로 인해 정리해고 당하고, 물가인상과 임금이 삭감됨으로써 생활상의 고통을 겪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시대에도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싸워야 하고 기아노동자, 민주택시노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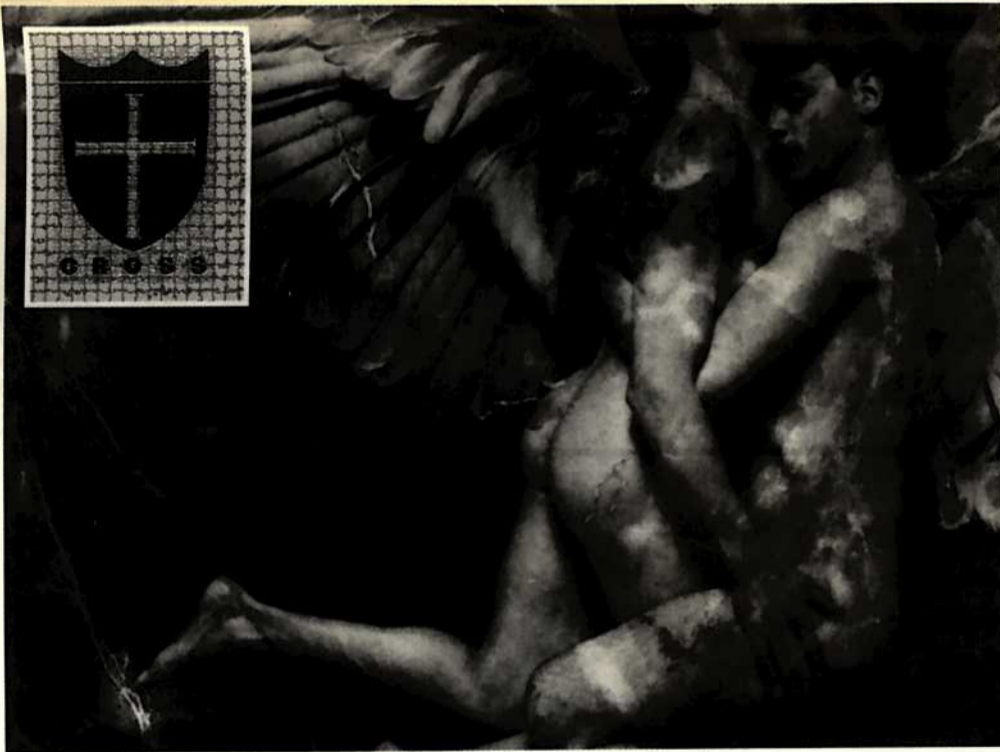
우리 동성애자들도 노동계급의 일부분이고, 이 사회에서 같이 억압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리해고의 1순위는 여성노동자와 동성애자이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유포시킴으로써 동성애자를 공격하고 노동자들과 분리시키고 있다.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없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동성애자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끊임없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1997년도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동참한 우리 동성애자들은 정리해고 반대투쟁 등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1998년 5월 1일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외부광고 2

CROSS



5월 8일(금) 개업
 영업시간 | 오후1-밤12시
 음료, 맥주 | 2500원
 phone | (032)884-1458

▲ 수봉공원	
● 제물포 앞역 ● 제물포 뒷역 ● 무치개 버스	
● 새한컴퓨터 ● 지하 1층 CROSS	

내부광고

대동인 기관지인 <다이크>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동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 10,000원

@정기구독을 하시면 대동인 회의자료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 근 | 월요일은 휴무 화요일-일요일(오후 1시-밤 10시)
 (전화) 02-923-0609 | (팩스) 02-923-2175
 대동인제작 | 상업은행(849-07-016135.양지용)
 우체국(01-3334-0081674.양지용)

입금	인권 자료실
A11	
39	

← 신설동 방향 →		□ 제기역 6번출구
	● 대우입시학원	
● 인악국 2층 204호 대동인		